

특별출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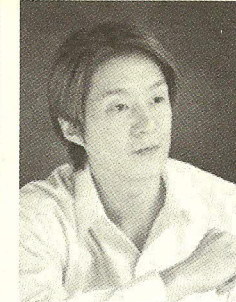
김매자



이혜경



오민정



엄재용



김세연

2002 이 시대의 춤

북놀이
등대-빛 속으로
Exit
지젤 중 "그랑빠드되"
(Giselle " Grand Pas De Deux")
춤본 II
들춤

부산시립무용단
오민정
이혜경
엄재용, 김세연
김매자
부산시립무용단

주최 부산광역시

2002. 1.31 (목) 19:30

부산문화회관 중강당
BUSAN CULTURAL CENTER MEDIUM HALL

- 관람권 / 균일 3,000원
- 공연문의 / 부산광역시립예술단 홍보부 607-6070~3
부산광역시립무용단 607-6118
- 부산광역시문화회관 홈페이지 www.bsculture.pusan.kr

· 진행/ 이정식 · 소품/ 안정숙 · 기획/ 해설/ 박소운 · 무대/ 고윤덕 · 조명/ 광동인 · 음악/ 이상기

지하철이용시

- 1호선 · 부산진역 하차 - 134번 환승
· 범일역 하차 - 25, 68, 93번 환승
· 서면역 하차 - 25, 68, 93번 환승 (롯데백화점 옆)
- 2호선 · 대연역 하차 - 51번 환승 (도보 15분 소요)

교통편

- 25번 (용당-문화회관-서면-당감동)
51-1번 (진포동 대우자동차-문화회관-부산대학교-구서동)
51-2번 (문화회관-외국어대(회차)-부산대학교-구서동)
51-2번 (감만동-외국어대-문화회관-부산대학교-구서동)
68번 (용당-문화회관-주례-동아대학교-하단)
78번 (용당-문화회관-양정-연산동-온천2동)
93번 (용당-문화회관-조방앞-당감동)
134번 (용당-문화회관-중앙동-송도 안마을)
378번 (용당-문화회관-시청-온천2동)



|작품해설



북놀이

안무·구성: 이노연

훈련지도: 홍기태 출연: 부산시립무용단

신명난 북의 한마당으로서 북을 들고 다양한 동선 변화를 주며 힘차게 북을 울리는 역동적인 작품이다.



등대-빛속으로

안무·출연: 오민정

(제3회 전국향작무용경연대의 한국무용부문 금상 수상작)

-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무용원 실기와 졸업
- 현,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전문사 무용원 창작과 재학 중

<주요공연>

- 21세기 젊은 춤꾼 페스티벌 댄스 '00 "등대-빛 속으로" ('00)
- 세 번째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에클립스" ('00)
- 네 번째 평론가가 뽑은 젊은 무용가 초청공연 "만찬" ('01) 등 다수.

시간이 지나 낮이 지나 어두운 밤이 되면 바닷가에는 어느새 작은 빛줄기가 우리들에게 보인다. 다가온다. 갑작스럽게 찾아 오지만, 그것은 오래 전부터 존재해 있었다. 그런 빛을 내 몸으로 마음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그것은 잠시 잠깐의 춤으로도 표현이 되고, 관객들의 상상으로도 그려질 수 있다.



Exit

안무·출연: 이혜경

- 부산여자대학교 무용학과 및 중앙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졸업
- 현, 군포 수리무용예술단 대표

<주요공연>

- 아이치문화예술센터 개관공연('95), 제52회 아비뇽 페스티벌('98), 새천년 해맞이 공식 문화 행사('00), 새로운 예술의 해 개막공연('00), 흑방('01), 소리풍경('01) 등 다수.

하루 하루, 우리가 뒤엉켜져 호흡하는 이 세상이 진동하고 있다.

매소 매분, 우리에게 교통되는 수많은 암울한 메시지들...

우리는 서로 뒤엉켜 가슴으로 신음하며 현실을 벗어날 출구를 찾으려 어공을 휘젓고 살아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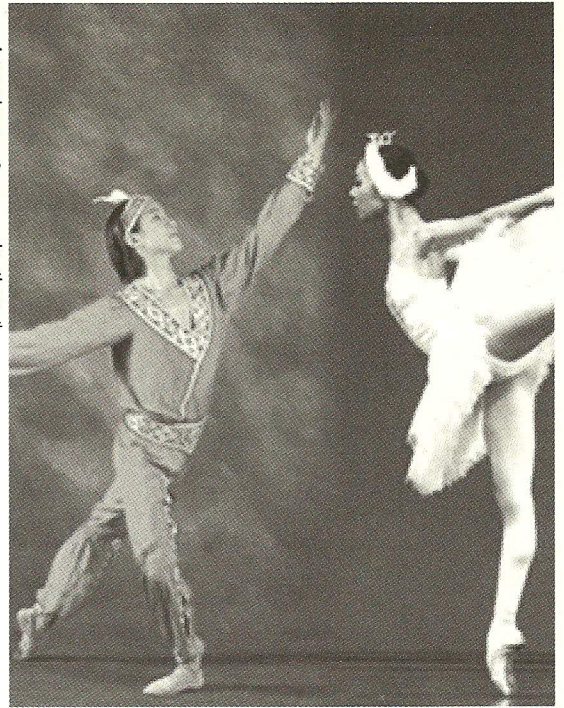
지젤 중 “그랑빠드되” (Giselle “Grand Pas De Deux”)

출연: 엄재용, 김세연

엄재용 · 선화예술재능개발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예술영재 1호로 선발 · 미국 Washington D.C.에 위치한 키로프 발레 아카데미에 특별 장학생으로 유학, '00년 제4회 루돌프 누레예프 국제발레콩쿨 Finalist, '00년 제9회 파리 국제무용콩쿨 시니어 솔로부문 Finalist, '01년 제6회 룩셈부르크 국제무용콩쿨 2인무 부문 은상 수상, '01년 제31회 동아무용콩쿨 일반부 발레 은상 수상 · 제38회 전국 신인무용경연대회 일반부 발레 특상 수상
<주요 출연작> “호두까기 인형”, “백조의 호수”, “심정”, “돈키호테”, “사랑과 운명”, “라 손남블라”의 ‘시인등 다수 · 현, 유니버설 발레단 “솔리스트”

김세연 · Washington D.C.에 위치한 키로프 발레 아카데미 졸업, '98년 제6회 USA 국제발레콩쿨의 Semi-Finalist · 제8회 파리 국제발레콩쿨의 Finalist, '99년도에는 ‘한국을 빛낸 발레스타 페스티벌’에 참가, '01년도에는 제6회 룩셈부르크 국제무용콩쿨에서 2인무 부문 은상을 수상, '01년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국제 발레스타 갈라’에 참가, '01년도 한국발레협회로부터 신인상 수상 · 현, 유니버설 발레단 “주역”

‘아돌프 아당’의 음악에 ‘쥘르베로’와 ‘장 고틀리’의 안무로 1841년 프랑스 파리에서 초연된 ‘지젤’은 낭만발레의 대표작이라 할 수 있다. ‘지젤’은 여주인공의 이름이며, 어느덧 사랑하게 된 상대역인 ‘알브레히트’의 배신에 대한 비통함으로 숨을 거두게된다. ‘알브레히트’가 처녀 영혼들인 <윌리>에 홀려서 죽을 때까지 춤을 추게 되자 ‘지젤’이 사랑의 힘으로써 ‘알브레히트’와 함께 춤을 추면서 목숨을 구하게 되는데... 이 작품의 백미인 ‘지젤’ 2막의 Pas de deux(2인무)를 엄재용씨와 김세연씨가 함께 추게된다.



춤본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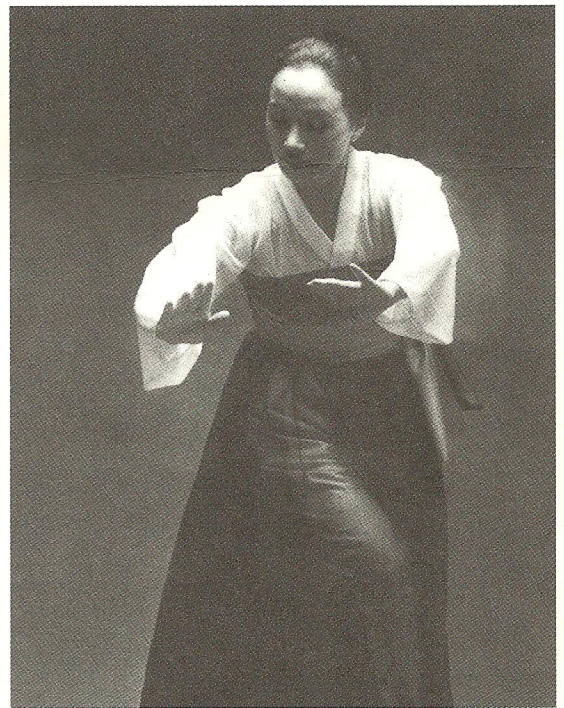
안무 · 출연 : 김 매 자

- 이화여자대학교 무용학과 교수 역임
- (사) 한국무용연구회 설립 및 초대 이사장 역임('82-91) · 무용공연단체 창무회 설립('76)
- 제24회 서울올림픽 폐막식 “떠나가는 배” 총괄 안무('88) 등 다수.
- 현, (사)창무예술원 대표

<주요공연>

“춤”('75), “비단길”('77), “사금파리”('82), “사물”('81), “꽃신”('85), “춤, 그 신명”('86), “춤본I”('87), “떠나가는 배”('88), “춤본I”('89), “무천”('91), “하늘의 눈 - 새천년 해를 부르는 춤”('99) 등 다수

이 춤은 무엇인가를 그려내거나 ‘표현’ 하여 사람 앞에 보여지도록 짠 이른바 ‘작품’이 아니다. 한마디로 김매자 춤의 기본 틀이라고 할까. 좁게는 김매자의 춤이 넓게는 세상에 춤이란 것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주어지고 주어져야 될 것인지, 그 춤의 밑바탕 본디 생김새를 찾아 묻고 궁리하고 배우고 익히며 같고 닮은 학습과 수련의 한 모형을 제시해 본 것일 뿐. 말하자면 춤의 길을 걷는 자로서 평생을 두고 수행해야 할 춤의 법도를 나름대로 정리해 본 연습무로서의 한 본보기이다.



드름춤

안무 · 구성 : 이 노 연

훈련지도 : 홍 기 태 출연 : 부산시립무용단

농경사회에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고 노동의 힘을 북돋워주던 풍물굿을 오늘날의 시각으로 재구성, 무대화 시킨 작품으로 땅의 힘을 뽐내는 듯한 기운차고 신명난 춤꾼의 춤사위와 함께 힘차게 울려 퍼지는 사물의 가락이 정신적 카타르시스에 이르게 한다.

